

상담사례 과정에 반영된 현실역동상담의 특성*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는 한국적 상담모형의 대안으로 현실역동상담이 제안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의뢰한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부모를 상담하면서 현실역동상담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했다. 현실역동상담의 일곱 가지 주요 특성은 한국사회가 체면사회인 만큼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 문제 파악하기, 내적세계 뿐만 아니라 외적인 현실세계 중시하기, 관계 속에서의 역할 강조하기, 상담자가 양육자 내지는 교육자와 같은 역할하기, 내담자가 깨어나도록 직면시키기, 부모-자녀간의 관계회복 도모하기,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내담자를 밀어 넣기인데, 이러한 것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아들을 둔 부모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명료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원자료가 너무 길고, 또 그것만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 자신의 해설이 곁들여진 사례보고를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주요어 : 현실역동상담, 한국적 상담모형, 역할, 직면, 업무자모

*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2007년도 2차 교비연구의 지원에 의함

† 교신저자 : 장성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Tel : 02-2168-2891, E-mail : changss312@hanmail.net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우리’라는 가족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그리하여 자아실현(自我實現)과 같은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자가실현(自家實現)과 같은 공동체적인 성취를 더 추구하는 편이다(최봉영, 2007). 뿐만 아니라 집단의 가치기준을 자신의 가치기준보다 소중히 하며 인간관계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관계주의의 문화를 발달시켰다(한규석, 2002). 이러한 우리사회에서는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중의 하나인 자아(self)도 독립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맥락적 자아를 중시한다. 즉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자아는 고정된 실체(entity)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 경험되는 가변적인 것이라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 1994). 따라서 우리가 적응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사회는 ‘우리’라는 다수, 관계의 최우선성, 상황맥락적 자아 같은 요인들로 인해 큰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역동성에 기초해 한국적 상담모형의 일환으로 제안된 현실역동상담(장성숙, 2000)은 다른 상담접근과 비교할 때 몇 가지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담접근이 폭력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해 아들의 폭력을 유발한 부모에 대한 일종의 위기상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본다. 이를 위해 현실역동상담 접근이 어떤 측면에서 한국인의 문화나 정서에 부합되는지와 아울러 그 접근이 지닌 특성을 살펴보고, 단회기에 마친 실제 상담사례를 상담자 자신의 해설이 곁들여진 방식으로 제시하여 그 속에 반영된 현실역동상담의 치료기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상담이론이 지닌 문화변인

사람들의 심리적 안녕이나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상담분야에서는 서양에서 발달된 정신분석적 상담이론, 인간중심적 상담이론, 인지-행동적 상담이론 등과 같은 전통적 상담이론들을 주로 활용해왔다. 이런 상담이론들을 활용하는 기저에는 어떤 문화권의 사람이든 기본 욕구는 공통적이라 여겼으며, 또 그와 같은 상담이론들이 담고 있는 내용 또한 문화보편적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담자들은 별다른 변형 없이 그러한 상담이론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왔다(장성숙, 2000).

그러나 이런 주요 상담이론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 이외에도 서구 문화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문화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도움 못지않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담이론들이 어떤 점들 때문에 문화권이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본다.

우선 정신분석 이론은 성장의 지표로 한 개인의 분화를 강조한다. 건강한 사람이란 충분한 애착을 경험한 이후 분리를 통해 독립된 개체화를 이룩한 자라고 보았다. 그러나 원활한 분리가 이룩되지 않았을 경우, 분노가 생겨나고 또 그것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면 무의식화 되어 있다가 마침내 병리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의식이나 자아와 같은 개념에 그리 친숙하지 않다. ‘우리’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자기를 부분으로 인식하는 한국인들은 너와 나의 경계를 확연하게 구분 짓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계를 엄격히 하는 상황에서 내부로 파고드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굳이 발달시키지 않았다(한성열, 2004). 그리고 한국인은 뿌리 깊은 가족주의에 의해 공동체적인 '우리'라는 개념을 더 발달시켰다. 그러므로 서양인들이 중시하는 자아(self) 개념 역시 덜 민감하게 인식되는 편이었으므로 분화라는 개념보다는 조화라는 개념을 더 강조해왔다.

인간중심 상담이론에 나타나는 주요 개념들도 잘 살펴보면 문화보편적인 것들이라기보다 서구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이론에서는 무엇보다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며 개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아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꼽는다. 그러나 서양사회와는 달리 우리사회는 위계를 강조하는 권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담자는 상담자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윗사람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짙고, 자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자아실현보다는 주위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양보하거나 헌신하는 태도에 더 큰 박수를 보낸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태도 및 역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나 하는 투명성보다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즉, 어떤 본모기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 편이다.

인지-행동적 치료이론에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사고의 확립을 우선시 한다. 이 이론에서는 정서장애의 핵심을 비난이라고 보고 지나치게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거나 자기 패배감을 일으키게 하는 비합리적 사고는 분열적 감정과 역기능적 행동을 만든다고 보았다. 그런데 신념이라는 것은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서구사회의 보편적 가치는 다른 지역의 가치와 다를 수가 있다. 가령

성이나 이혼에 대해 서구사회에서는 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주변을 의식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주체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하는 태도가 오히려 건강의 증거가 된다. 의존심에 대하여서도 서구사회에서는 미성숙을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로 취급하는 반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우리사회에서는 자녀를 양육할 때 조장하는 편이기도 하다. 또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을 위해 자기반성 즉, 부적 정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는 달리 서구문화권에서는 건강의 지표로 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편이다(Markus & Kitayama, 1994).

이렇듯 전통적 상담이론들이 서구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문화보편적이고 어떤 것이 문화특수적인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이론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요소들은 적극 받아들여지되, 그 이론들 속에 반영되어 있는 서구인들의 문화특수적인 가치들은 제거하고 그 자리에 우리의 문화특수적인 요소들을 첨가해야 상담효과를 최대한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본다.

현실역동상담의 특성

우리의 문화변인을 반영하는 한국적 상담모형의 일환으로 필자가 제안한 현실역동상담에서는 무엇보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파악했다(장성숙, 2000). 삶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는 다름 아닌 현실로 이 속에서 사람은 새

롭게 깨어나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도전하며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취지에서 현실역동상담이라고 명명된 이 접근에서는 사람의 복합적인 측면을 살피기 때문에 지정의(知情意) 중 어느 특정 요소를 강조하기보다 내담자를 깨어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느 것이든 관계없이 강조점을 달리해 접근한다. 이러한 현실역동상담에서 추구하는 상담의 목적은 무엇보다 현실적인 적응으로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며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공존의 방식을 터득해 원만한 적응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모형이 지닌 특성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장성숙, 2007).

첫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할 때 내담자가 처한 전체적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다. 우리사회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최상진, 2000) 내담자들이 도움을 청하러 온 상태에서도 좀처럼 자기나 가족의 치부에 대하여서는 말을 하지 않으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왜곡된 정보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그 사회의 보편적 상식에 기반을 두고 무엇이 생략되고 어떻게 각색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둘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개인의 심리내적 세계 못지않게 외적인 현실세계에 대하여 적극 다룬다. 관계주의인 우리사회의 특성상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파생하는 것들이다. 이런 관계상의 문제는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상담자가 적극성을 띄고 내담자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개인적

인 ‘자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에 비중을 둔다(장성숙, 2004). 특히 우리사회는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 따른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라면 최소한 아버지로서의 구실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형이면 최소한 형으로서의 구실을 해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긴다. 만약 자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러한 일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 하더라도 난 놈보다는 된 놈을 우선시하는 우리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자신의 구실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편이다.

넷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치료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부모나 스승과 같은 양육자 내지는 교육자와 같은 역할도 해야 한다고 여긴다(장성숙, 2002). 전통적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자기와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기보다 경험 많은 윗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며 지도편달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어른의 이상적인 표상으로 직언을 아끼지 않는 엄부자모(嚴父慈母)와 같은 모습을 취해 공감을 해주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깨어나게끔 가능한 한 직면을 많이 시도한다(장성숙, 2004). 대체적으로 내담자는 힘든 상황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의 패턴에 익숙한 나머지 변화에 경직성을 보인다. 내담자가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자칫 실기를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힘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담자는 내

담자가 감당할 만한 다양한 종류의 직면을 시도한다.

여섯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가능한 한 내담자에게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혈연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한국인에게 부모라는 대상은 거의 종교와도 같은 존재이므로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부모상을 복원시켜주는 것은 든든한 울타리나 배경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일곱째, 현실역동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사회성을 익히게끔 가급적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해 나가도록 상담자가 부단히 밀어준다. 삶이란 곧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피하고서는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부적응이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하는 데에서 자신감을 잃고 부유하는 것이라고 본다.

청소년 아들에게 폭행당한 부모 상담사례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들의 부적응 문제다. 과열된 학업에 대한 중압감 또는 증가된 이혼에 따른 결손 가정 등으로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러한 심각성을 해소하고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전화 1388번호를 개설해 전국 규모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어디서든 1388로 전화를 하면 그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연결되어 신속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들어보고 그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쪽에서 처리하고, 만약 다른 곳으로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다른 상담기관을 추천해주는 체제다.

다음의 사례는 부모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전화를 해 아들이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호소내용이 심각하다고 여긴 상담원은 그 사례를 본 연구자(상담자)에게 의뢰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희귀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는 현상이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처하던 우리나라에서 인간관계의 근간이 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역동상담 접근을 시도해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는 아들에 대해 고심하는 부모를 상담했다. 이 상담내용을 본 연구에서 다룬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오늘날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한 단면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상담사례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보고 느낀 내용을 곁들인 즉, 상담자의 해설이 가해진 보고를 토대로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원재료가 아니라 이렇게 해설이 가해진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실제 대화를 그대로 실을 경우 원재료가 너무 길고, 또 문자 속에 담을 수 없는 표정이나 억양과 같은 것들이 주는 정보를 표현해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부부가 급히 찾아와 호소한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패륜아가 되어가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는 것이다. 전날

밤에는 어머니까지 밀치며 때렸다고 한다. 그리고 당일 아침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등교를 했다는 것이다.

자식이 자기를 낳아 키워주는 부모를 폭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중에서 최악의 일이다. 어찌해 아들이 그렇게까지 되었느냐고 묻자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전날 밤 아들이 친구들과 노느라고 늦도록 들어오지를 않아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를 했단다. 그러자 자정이 넘어 들어온 아들은 왜 이렇게 늦었느냐며 별 다른 감정 없이 말하는 어머니를 느닷없이 밀치며 때렸다고 한다. 자기는 더 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극구 자기를 돌려보내자 아들은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그런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이런 식으로 커서는 안 되겠기에 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문의를 하러 왔다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들 부부도 드러난 결과만을 묘사하며 아들의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어찌하다 그런 사태로까지 진전되었느냐고 다시 묻는 상담자에게 그들은 지난밤에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만 국한시켜 설명했다. 즉 어머니가 취한 태도는 합당한데 왜 아들의 행동이 그러한지 모르겠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부모에 대해 쌓인 감정이 없다면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밀치고 때렸다면 그 아들은 이미 정상궤도를 벗어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학교에 다니거나 친구와 어울려 지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은 어머니를 때린 다음 날에도 여느 때처럼 친구들이 있는 학교예를 갔다. 그래서 상담자는 부모가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까지 되

었느냐고 다시 물어보았지만, 그 부부는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난폭해지기 시작했다며 지난 1~2년 동안 아들이 부모에게 어떤 행패를 부렸는지를 나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상담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를 향해 “아들을 심하게 때리며 키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렇게 물었어도 아버지는 아들이 평상시에도 얼마나 한심한 행동을 보여 왔는지를 설명하기에 바빴다. 만약 아들을 때리며 키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을 때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한다. 그러나 딱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들을 심하게 때렸음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상담자가 이제는 남편 옆에 앉아있는 부인을 바라보며 자기를 가혹하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때렸다면 그것은 더 큰일이라고 못을 박고, 그렇다면 자식 앞에서 부모가 형편없이 보였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며 부모의 처신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러자 부인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남편이 아들을 무척 사랑하기는 하는데 간혹 자기 성질을 못 이길 때는 아들을 때렸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여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외아들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극진함을 넘어 집착으로 보일 정도였다. 가난한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일찍이 홀로 상경해서는 독학을 하며 자수성가한 남편은 아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학원을 빠지거나 또는 성적을 기대만큼 올리지 못하면 가차 없이 때렸던 것이다. 아들의 뺨을 후려치는 것은 예사였으며 심할 때는 아들을 코너로 몰아 발길질을 했다고 한다. 아들이 어려서 힘이 없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맞고 살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해 중학교 3학년이 되자 대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아

버지가 더 이상 아들을 때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들은 흥분하기만 하면 눈이 뒤집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미친 사람처럼 나댜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마저 주먹질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1388로 전화를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포악하면 어머니가 죽을힘을 다해 아들을 보호하려들기 때문에 대체로 아들이 어머니만큼은 끔찍하게 여기는데, 어째서 어머니마저 때렸는지 의문이라고 상담자가 의아스러워했다. 그러자 머뭇거리던 어머니가 답하기를 자기도 남편이 무서워 남편이 아들을 때릴 때 말리지를 못하고 피해있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어머니의 말에 상담자는 그냥 넘어가지를 않고, 그렇다면 아들입장에서 좀 서운하기는 하겠지만 어머니도 자기처럼 힘이 없는 피해자인데 그런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기보다 가해자로 취급한 것이 이상하다고 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이 저지른 실책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은폐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넘어가면 당면한 문제의 실체를 알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진상을 알기 위해 한참을 이렇게 주고받으며 탐색의 고삐를 늦추지 않자, 그때서야 어머니가 자기 역시 공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들을 학원으로 뺑뺑 돌리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심하게 야단을 치며 때렸다고 실토했다. 그때서야 상담자는 수긍을 했다. 어머니 역시 공부에 대한 욕심으로 아들을 폼어주기보다 수많은 학원으로 내몰며 심하게 대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것이다. 더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으

로 아들 곁에 머물러주지를 않았던 사람이다.

상담자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부인에게 혹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었는데 얼굴을 붉혔다. 비록 피해자인긴 했지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에 멈칫거리는 것으로 보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간파한 상담자는 다른 거짓말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자 얼른 남편을 향해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들이 폭력성을 갖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영겁 곁에 상담자에게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렸다는 것을 들킨 그 아버지는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인지 별걸게 달아올랐다.

이 정도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 아들은 어머니와 제대로 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사이도 없이 남의 손에 의해 키워졌고, 조금 자라서는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며 유년기와 아동기를 외롭게 보낸 아이였다. 이렇게 정서적 결핍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하고 자란 아이는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마지못해 움직이는 수동적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다. 간혹 태어날 때부터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아이는 집에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극성스럽게 밖으로 나가 욕구를 채우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위축되게 마련이다.

상담자는 그 부모에게 어찌자고 귀한 아들을 낳아 이렇게 키웠느냐고 다소 힐난조로 말했다. 그러자 부모가 항변하기를, 아들이 매사에 너무 게으르고 하나에서 열 가지 모두를 일일이 잔소리를 해야만 움직인다고 했다. 따끔하게 혼을 내지 않으면 말을 잘 듣지 않았

고, 거기다 거짓말까지 하니 호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느 땐가부터 그 부모와 아들은 악순환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부모가 말 하듯이 일일이 간섭하고 야단을 치지 않으면 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없으니 부모로서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라는 대상은 부모와 똑같은 어른이 아니라 보살피며 키워야 하는 어린아이였다. 그러니 아들이 답답하게 굴어서 부모가 그렇게 했다는 말보다는 애초에 부모가 아들을 생기 없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아들이 답답하게 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단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동안 들어주었다. 아버지 역시 어떤 면에서는 아이와 똑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른 아님 아들을 그렇게 다루었다는 것이 아버지 역시 어른다운 아버지라기보다 미숙한 어른이었다는 증거다. 그리고 상담자의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어 속을 비워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과연 아버지가 느끼는 아들에 대한 답답함과 걱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보면 못마땅한 아들의 수많은 행동들은 이미 꺾인 뒤의 현상들이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야단을 칠 때 겁을 내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미련 맞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아 매를 벌었다는 것도 아들이 눈치가 없어서라기보다 저항 즉, 변형된 분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유치원에 가려들지를 않아 부모 속을 많이 태웠다는 것도 부모에게서 든든함을 느낄 수 없었던 아이가 낯선 상황에 대해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 좋은 것을 마련해 주어도 별로 호

기심을 보이지 않거나 스스로 뭔가를 하려들지를 않는 태도 역시 그렇게 태어나서라기보다 기본적인 애정에 대한 충족이 제대로 되지를 않자 그 어떤 다른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상담자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나타내 보이는 대부분의 행동은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애정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를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결과인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아이의 상태를 헤아리며 또 그것에 맞게 얼마나 잘 보살피주었느냐 하는 것이 성격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설명을 해주었다. 이러한 상담자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연하기를 결혼 초에 남편의 별난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냈고 아이는 거의 남의 손에 맡겨 키웠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 부인은 어린 시절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몰랐다면 뒤 늦게나마 자책하는 듯 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자기는 아들을 위해 이런 일도 했고 또 저런 일도 했는데, 아버지를 향해 눈이 뒤집혀 나대는 아들은 이미 아들이 아니라며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볼 것도 없다며 큰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아들을 경찰서에 처넣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끌고 가야겠다고 했다. 즉 아들에 대해 만정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는 것은 물론 어머니까지 때리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상담자를 찾아오긴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분을 풀 수가 없었던 것이다. 거기다 상담자가 얼른 아들을 휘어잡는 방안을 알려주기보다 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내막을 상세히 살피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고 또 아내를 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아버지는 부끄러움 때문이었는지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마침내 상담자도 격앙된 태도를 보이는 그 아버지를 향해 단호한 어조로 일갈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책임이 아니냐고, 그 아이인들 이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힘들게 시달리며 살고 싶었겠느냐고,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지 못하고 방치하다 뒤늦게 공부에나 욕심내어 이 지경이 된 것 아니냐고, 그 아이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는지 그 아이 입장에서 헤아려 본적이 과연 있기는 하냐고, 그동안 아들이 다름 아닌 지옥살이를 하듯 그렇게 살지 않았겠느냐고 상담자 역시 큰 소리를 쳤다. 그래도 아버지가 누그러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그렇게 경찰서에 보내려면 뭇 하러 상담자를 찾아왔느냐고 아들이 아버지가 한 대로 보고 배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무엇을 못 참겠다는 것이냐고 상담자 역시 물러서지 않고 대응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자기 못지않게 강경한 어조로 말하는 상담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신의 기에 상담자가 전혀 놀리지를 않으면서 사리에 맞는 말을 또박또박 해대자 그만 그도 할 말이 없었던 듯하다. 즉 기세 싸움에서 상담자가 물러서거나 놀리지를 않고 남편과 상담자 간에 고성이나 오가는 동안 좌불안석해 하던 부인은 몹시 의아해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상담자가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하니 시원한 듯 밝은 표정을 지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얼마 후 상담자가 평상시의 어조로 돌아와 아들이 밖에서는 어떻게 행동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아들이 친구들과는 별 문제

없이 그런대로 어울리는 듯 하며, 공부는 중하 정도이지만 학교는 으레 가야 하는 줄로 알고 있다는 대답을 했다. 즉 밖에서는 조용한 편이며 전혀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에 상담자가 반응하기를, 아들이 비록 집에 와서는 부모에게 패악을 떨어도 그나마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만약 아들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기피하며 혼자 컴퓨터 게임에나 빠져 있으면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큰일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지내야지 그렇지 못하면 괴리되어 부적응의 정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담자가 힘주어 말하기를, 밖에서는 그런대로 멀쩡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덜 망가진 징조라며 더 늦기 전에 얼른 아들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자고 했다. 이런 말에 그 부모는 그나마 위로가 되었는지 조금은 걱정을 완화하는 듯 했다. 사실, 부모에게 놀린 나머지 자신감을 상실해 대외적으로 위축되어 홀로 철회하고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밖에서는 그런대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상담자는 다시금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부드러운 어조로 일러주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냐며 아직은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다닐 때가 아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어머니가 재빨리 물었다. 그네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은 좀 전에 상담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인지 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래서 상담자는 그 부인에게 남편이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데, 독하지 않았던들 과연 성공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며 아주 독해야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지독함이 그만 성격적으로 굳어져 때와 장소를 가려 완급을 조절하지 못하고 즉, 유연함을 잃어 가족에게도 독하게 표출되어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 아니냐며 적어도 배우자만큼은 그런 남편을 헤아리며 이해할 줄도 아는 맛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어차피 헤어지지 않고 살 바에는 마지못해 살 것이 아니라 힘겨웠던 남편의 지난날을 헤아려주는 맛이 있어야 남편도 독해졌던 응어리로부터 풀려나지 않겠느냐고 하자, 아내는 부끄럽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자기를 편들어 주는 말에 뭔가가 누그러졌는지 굳은 얼굴을 펴면서 시선을 아래로 깔았다.

이렇게 하여 남편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 상담자는 다시 남편을 향해 원래 매듭을 지은 자가 매듭을 풀어야하지 않겠느냐며 더구나 아들은 아직 어리니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사과 하는 것이 훨씬 멋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원래 한국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종교를 대신할 만큼 상호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긍정적인 아버지상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아들이 밖에 나가서도 얼마나 당당하겠느냐고 말했다. 아들이 잘 나가면 아버지께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듯이 아들 역시 아버지가 자기를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깨가 딱 펴질 것이라고 했다. 그제야 아버지는 수궁이

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룩된 듯이 보이자, 비로소 상담자는 그날 상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의 빼뚫어진 마음을 풀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일러주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무 것도 지닌 것 없이 맨 주먹으로 상경해 세파에 휘둘리며 모진 고생을 다하는 바람에 독해질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런데 이렇게 독하게 살아야 쓰러지지 않는 것인 줄 알고 미련 맞게 가족에게도 모질게 하는 우를 범했노라고, 실은 아들을 강하게 키워 이 험한 세상에서 덜 고생하며 살도록 힘껏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다고 읊조리며 아들 앞에서 사죄하라고 했다. 그러면 아들이 처음에는 의아해 하거나 못들은 척 할 것이라고.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하라고. 그러면 아들이 처음에는 의구심을 갖다가도 자기를 위해 나름대로 애쓰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며 독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습성화되었었구나 하고 조금씩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 긴 과정 없이는 부모를 향한 아들의 응어리진 마음이나 난폭한 행동이 줄어들지 않을 테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상담자의 말을 어느 정도 수궁을 하면서도 아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거듭거듭 반복해 사과를 계속하라는 말에 주춤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눈치였다. 그래서 상담자가 다시 이르기를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 속이라도 기꺼이 뛰어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아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며 간곡하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른 집안의 실례를

들어주었다.

다른 집안에서 발생했던 부자간의 갈등 또한 살벌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유학을 떠나면서 어린 아들을 처갓집에 맡기고 갔다. 7~8년 만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해 아들을 찾아왔는데,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외갓집에서 너무 오냐오냐 자라 버릇이 없다고 비친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엄격하게 키운다고 야단을 치자,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버지가 자기를 심하게 다루는 태도에 아들은 거세게 반항을 했고 마침내는 서로 앙숙이 되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런 갈등 속에서 반항하다 뼈뜰게 되어서는 대학교 진학도 못하고 되면서부터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마찰은 더욱 거세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단을 치자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앙심을 품고 원망을 하던 아들은 아버지와 치고 박는 몸싸움을 하며 거실바닥을 뒹굴었다. 급기야 아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어느 순간 아버지를 깔고 올라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힘에 눌려 꼼짝 못하게 된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래, 네가 나를 찢러 네 마음이 편해질 수만 있다면 나를 찢러라. 그리고는 부디 편안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하고는 온 몸에 힘을 뺀 채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내리치려던 칼을 들고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칼을 내팽개치고는 그 자리에 엎드리어 영영 울고 말았던 것이다.

상담자가 이런 이야기를 그 아버지에게 들려주면서 이 시점에서 그동안 부모로서 아들에게 너무나 잘못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잘 안 되면 아들 밑에 깔린 아버지가 그렇게라도 마지막 순간에 얼른 아들에게 저주는 기지를 부리니까 자

기도 살고 아들도 살게 된 것 아니냐며 당신은 그런 기지를 부릴만한 준비가 안 되어있냐고 물었다. 그제야 그 아버지는 약간은 겸연쩍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들에게 상담자가 마지막으로 추가한 말은 일단은 그렇게 사과를 무수히 되풀이해 아들의 독한 마음을 풀어 놓으라고, 그리고 다시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했다. 그러자 그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며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현실역동상담의 특성에 입각한 상담사례 분석

현실역동상담의 제1특성(본 논문에서의 순서)은 우리사회에서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와서도 내담자들이 상담자에게 자기나 가족의 치부에 대하여서는 좀처럼 말을 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상식에 기초해 내담자가 처한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 무엇이 생략되거나 각색되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본 사례에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아들에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는 말만 했을 뿐인데, 아들이 어머니를 때리고 밀치고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면 아들에 대한 고발성 발언만을 들려준다. 즉 그 전부터 아들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 심하게 다루며 때렸다는 말을 일절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상담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아들을 심하게 때리며 키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도 아버지는 답을 회피하며 아들이 얼마나 한심한 행동을 했는

지를 나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더구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곤 했느냐고 물었을 때 부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내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피하려 했고, 남편은 숨기고 싶은 것이 노출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당면한 현상이 펼쳐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들이 부모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며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자란 아들이 사춘기를 맞이해 힘이 생기니까 자기가 당한 만큼 부모를 때리게 된 것이다. 만약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를 때렸다는 엄청난 사실에 놀라 상담자가 부모에게 동조를 했다면 아들의 억울한 심정은 또 다시 놀리는 형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문제의 본질이 묻히게 된다.

현실역동상담의 제2특성은 우리사회는 관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내적 세계뿐만 아니라 외적인 현실세계에 대하여서도 적극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담이 내담자가 호소하는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근접하지 못하고 자칫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유만 파헤쳐 놓고 맴돌다 그칠 수가 있다.

본 사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렇게 부모까지 폭행하는 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다. 바로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는 답답한 마음에 1388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연결이 된 경우다. 본 상담자는 위기상담의 성격을 띤 이번 단회 상담에서 그 배경을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헤쳐 나올 수가 없었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남편의 성격으로 때문에 원만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자 부인은 가정에 별로 정을 붙이지 못하고 직장생활에나 열중했다. 그러다 아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아들의 학업성취에만 관심을 보였고, 거기에 아버지마저 가세해 시시때때로 아들을 가차 없이 때던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뒤틀린 아들은 이제 걸핏하면 부모를 때리는 패륜아가 되어 갔고, 부모로서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상담자는 아들의 마음을 돌리는 방안으로 아버지가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상세히 읊조려주고는, 아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사과를 하라고 일러주었다.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해 그 부부는 수긍을 하고 흡족한 얼굴로 상담실을 나섰다. 시급한 상황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들의 행동거지를 어떻게 바로잡아주느냐 하는 실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었고, 상담자 또한 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개입을 해주었다.

현실역동상담의 제3특성은 내담자의 개인적인 ‘자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는 유교적 가르침을 행동규범의 이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관계에서의 의무나 역할을 즉,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여긴다.

본 사례에서는 상담의 중심인물이 아들이지만 실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다. 아들이 부모를 구타한다는 가해행동 그 자체보다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심각성 앞에서 상담자는 그런 결

과의 발생 원인이나 과정을 세세하게 밝히는 데 시간을 길게 할애하지 않고 간략히 줄기만 짚어내고 넘어갔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든 어느 누구도 사람을 패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하여 상담자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과연 부모로서 부모다운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 몰아갔다. 부모가 부모답게 자녀들 보살폈더라면 과연 아들이 부모를 향해 그와 같은 분노 폭발을 했겠느냐며, 이제 와서 아들을 비난하는 것은 가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했다. 나아가 더 늦기 전에 그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또한 부모의 피할 수 없는 도리라고 못 박으며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촉구했다.

현실역동상담의 제4특성은 상담자가 치료자로서의 기능뿐만 어른으로서 교육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문화권에서 이상적인 어른은 엄부자모(嚴父慈母)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자신의 이익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일 때면 상담자가 엄한 아버지처럼 호되게 야단을 쳐서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사례에서 상담자는 아들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애정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렇게 시원찮아질 수가 있다는 설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를 향해 눈이 뒤집혀 나대는 아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아들을 경찰서에 처넣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끌고 가야겠다고 했다. 이럴 때 상담자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부모 아니냐며 그 아이인들 이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었겠느냐고,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

럽게 지냈는지 그 아이 입장에서 헤아려 본적이 과연 있기는 하나고 일갈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자기 못지않게 강경하게 말하는 상담자에게 놀리듯 태도를 낮추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서야 상담자는 아들이 그나마 친구들과는 어울리며 학교를 다니는 것이 다행이라며 그들의 걱정을 완화시켜주었고, 나아가 그 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을 어떻게 교정시켰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을 헤아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담자가 가장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는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헤어지지 않고 살 바에는 힘겹게 사느라 독하게 된 남편을 헤아리며 이해하는 멋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내에게 슬쩍 말함으로써 상담자가 부모나 선생님처럼 개입하면서 남편의 노여웠던 심정을 풀어주기도 했다.

현실역동상담의 제5특성은 내담자가 깨어나게끔 가능한 한 직면을 많이 시도한다는 것이다. 만약 상담자가 내담자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자칫 실기를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할 상담결과를 낳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내담자는 힘든 상황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의 패턴에 익숙한 나머지 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감당할 만한 최소한의 힘이 있다고 여겨지면, 상담자는 과감하게 직면을 시도해 단기간 내에 변화를 이룩하게끔 한다.

본 사례에서는 내담자들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주기에 앞서 곳곳에서 많은 직면을 시도했다. 예를 들면, 아들이 그렇게까지 일탈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부모의 우려를 공감하기보다는 아들을 가혹하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이 부모를 때렸다면 그것이 더

큰일이 아니겠냐며 즉, 부모가 얼마나 형편없이 보였으면 아들이 부모를 핼겠느냐며 부모의 처신에 강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부모가 아들을 무수히 때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거칠게 다루면 어머니가 그런 아들을 보호하려들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만큼은 양순하게 마련인데, 그 아들이 어머니마저 때렸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그때서야 그 어머니도 아들이 어렸을 때 아들에게 정을 주지 않고 직장생활에만 열중하며 지냈으며 아들을 학원으로만 내들렸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난날의 가혹했던 처사에 대하여 사죄하라는 말에 아버지가 주춤하자 상담자가 말하기를,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 속이라도 기꺼이 뛰어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아들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밀어붙였다. 이러한 것은 상담자가 어른으로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설득적으로 하는 태도와는 다르게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내담자를 깨어나도록 하는 상담의 개입기술이다. 사실 그동안 기존의 상담접근에서는 주로 내담자의 심정에 무수히 공감반응을 함으로써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 못지않게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술이 바로 직면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직면은 때때로 그 어느 것보다 빠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현실역동상담의 제6특성은 모든 내담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내담자에게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부모라는 대상은 분리시킬 수 없는 혈연으로서 거의 종교와도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부모

상을 복원시켜주는 것은 내담자에게 든든한 배경 및 울타리를 마련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마침 본 사례는 부모와 자녀 간의 폭력을 주호소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회복은 필수 과제였다.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즉, 부자(父子)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다(Hsu, 1971),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혈연 관계를 가장 우선적인 관계로 여기며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여기기보다 혈통에 근거한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의 부분자 또는 확대된 자아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거의 맹목적인 헌신을 하며 동시에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부모 섬기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다. 이러한 관계에서 부모에게 한 때나마 지극히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내담자가 자각할 경우, 그 내담자는 자존감의 증대와 아울러 자신감을 빠르게 회복한다. 본 사례에서처럼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어린 자녀가 아니고 부모라면 그 부모 역시 자녀에게 의지나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느낄 때 어디에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자존감 내지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아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반복하게 하고, 그러한 사과를 할 때 아버지가 한 고생을 아들에게 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 강하게 키우고자 했던 것이 잘못되었노라며 은근히 아버지의 정이 나타나도록 말하라고 지도해주었다.

현실역동상담의 제7특성은 내담자가 사회성을 익히게끔 가급적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해 나가도록 상담자가 밀어준다는 것이다. 적용이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불편 없이 어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용

어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적 균형을 잘 이루었다 할지라도 혼자 지내는 삶은 공허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사회는 전형적인 집단주의 사회라기보다 독특한 성격의 관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원활한 관계는 건강한 삶의 기본이 된다. 본 사례에서 상담자는 아들이 밖에서는 어떻게 행동 하냐고 물으며 아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점검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아들이 교우관계에서 주도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어울리는 편이며 학교에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고 했다. 즉 밖에서는 집안에서처럼 그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지 않고 조용하게 지낸다는 것이다. 사실, 그 아들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못하고 혼자 집안에만 칩거하고자 한다면 상담하기가 훨씬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담자가 사회성을 중요시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은 본 사례에서 부모들에게 그나마 아들에 대한 안도감을 갖게 해주었다. 그리고 부모가 아들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얼른 사과를 하여 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가 보다 쉽게 부모에게 전달될 수가 있었다. 아들이 더 망가지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말은 거꾸로 아직 아들에 대하여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맺는 말

현실역동상담이 지닌 강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접근의 특색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매우 밀접하게 다가선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내담자는 상담자를 찾아올 때 상담자가

자기와 대등한 관계에 있다기보다 전문가로서 자기에게 유효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찾아오는데, 이때 상담자가 전문가로서의 위엄을 지키며 어른노릇을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만약 상담자가 서양사회의 상담철학에 입각해 내담자와 대등하고자 자신을 낮추려고 하면 오히려 기대감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내담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우리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사례에서 상담자는 상식에 근거해 내담자들이 아들에게 어떤 행위를 했었는가 하는 것을 간파했고, 또 그런 상식에 입각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를 설명했다. 어려운 개념이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진행함으로써 내담자가 상담자가 하는 말을 쉽게 수긍하게끔 했다. 이렇게 상식에 기초한 상담이 바로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접근이며, 또 이런 관점에서 발전된 현실역동상담은 상담의 토착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점이 크리라고 본다.

현실역동상담이 우리의 정서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이 상담접근이 기존의 상담접근에서 강조하는 내담자의 심리역동에 대한 깊은 이해나 공감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내담자의 심리역동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문제의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또 내담자의 심정에 대한 깊은 공감 없이는 내담자에게 적합한 방향을 제시해주지도 못할뿐더러 내담자 또한 상담자의 말을 수용하거나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현실역동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역동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분노

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기대하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쪽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문화풍토에서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상담자에게 어른의 모습을 기대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이상의 것 즉,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상담에서 기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수행하려면 상담자의 역량이 그 어떤 상담접근에서보다 요구된다. 그래서 한국적 상담모형으로 제기된 현실역동상담에서의 제일 큰 관건은 상담자들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하는 과제이다. 그만큼 어른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상담자를 양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장성숙, 2007). 그렇다고 한국인 내담자들이 그런 상담자상을 기대하는 이상 그것을 저버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든 그것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상담자가 취할 진지한 자세이며 과업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장성숙 (2000). 현실역동상담: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장성숙 (2002). 우리 문화에서의 상담자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47-561.

장성숙. (2003). 한국문화와 현실역동상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47-160.

장성숙 (2004). 한국문화에서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한국심리학회

지: 사회 및 성격, 18(3), 15-27.

장성숙 (2007). 가족주의와 현실역동상담의 일체적 관점. 한국상담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23-537.

최봉영 (2007). 한국사회의 가족문화. 제 8회 현실역동상담 학술세미나 가족주의와 상담의 관계, 7-22.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개정판). 서울: 학지사.

한성열 (2004). 한국인의 마음관-한국사람은 불안한가, 화가 나는가? 현실역동상담학회 제 3회 학술대회.

한성열 (2005). 한국인의 문화 특수성: 가족관계로 본 한국 문화의 특성. 한국 문화의 특성과 상담. 가톨릭 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제5회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21-30.

Hsu, F. L. K. (1971). Kinship and culture. (F. L. K. Hsu. ed.). Chicago: Aldine.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Markus, H. & Kitayama, S. (1994).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Markus(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utual influence*. 89-13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0. 01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11. 22

The Characteristics of Reality Dynamic Counseling in Real Counseling Process

Sung-sook Ch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Reality Dynamic Counseling which reflects Korean culture and Korean sensibilities has been introduced as a model of Korean counseling approach. This is a qualitative study to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Reality Dynamic Counseling appear upon the real counseling process for the clients who were physically attacked by their own son and were brought to this counseling expert from juvenile counseling service center. The major properties of Reality Dynamic Counseling are grasping the problem with connecting whole context, dealing with an external world as well as an internal world, emphasizing a role in relation with others, serving as a fosterer or an educator for counselor, confronting a client to awake from a disillusion, restoring to the good relationship between a parent and a child, and pulling a client to the relation with people. These properties are well brought out in the real counseling process. The Manual written by a counselor which gives us detailed commentary on counseling process was select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because the protocol between a counselor and a client was too large quantity and it could not show on how to change like facial expression and voice.

Key words : Reality Dynamic Counseling, a model of Korean counseling approach, role, confrontation, a stern father and an affectionate mother